

인텔리안테크 평택 2사업장 ‘저궤도 위성 안테나’ 양산

위성통신 안테나 선도기업인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대표 성상엽)는 평택 제2사업장 완공을 마무리를 짓고 이달부터 저궤도 위성통신 안테나 등 위성통신 안테나 생산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회사는 이달 평택 제2사업장 가동을 계기로 신규 수요가 증가하는 저궤도 위성 통신 안테나 등 제품 양산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위성통신 분야 5G라 불리는 ‘저궤도 위성(LEO)’시대에 대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회사는 지난해 10월 말 약 400여억 원을 투자해 총 1만469㎡(약 3100평) 부지 면적에 신규 생산라인과 물류창고 등 부대 시설을 포함해 2만575㎡(약

완공 마무리 짓고 생산라인 가동 해상용 VSAT·저궤도 안테나 등 월 6000대 출하…매출 견인 기대 전자식 개발 설비도 속속 도입

6200평) 규모의 평택 제2사업장을 완공했다.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는 신규 제2사업장에선 해상용 중소형 위성통신국(VSAT) 안테나, 저궤도 위성통신 안테나 등 제품을 양산할 계획이다. 본사가 위치한 평택 제1 사업장에서 2.4m 사이즈 제품 시리즈와 게이트웨이 안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평택 제2사업장 전경.

테나 등 대형 제품군을 생산한다.

회사는 신규 생산라인 가동으로 향후 월 6000대 이상 해상용 VSAT 안테나 등 저궤도 위성통신 안테나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말부터 생산을 시작한 원웹(OneWe

b)항 저궤도용 위성통신 안테나는 컨베이어 벨트 조립 라인과 자동 포장 등 스마트 자동화 설비를 구축해 대량 생산이 가능토록 라인을 구성했다.

강승구 제조 총괄 부사장은 “올해 하반기 저궤도 위성통신안테나의 제품이 본격적으로 출하 될 예정이고 안정적인 제조 공정을 통해 좋은 품질의 다양한 제품을 공급한다”면서 “회사는 기술적으로 보다 진보된 형태인 전자식(Phased Array) 안테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반기 제품 출하를 위해 SMT(표면 실장 기술)설비 등 전자식 안테나 생산을 위한 설비를 도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평택 제2사업장을 통해 물류관리를 일원화하고 생산 구조 확장과 일관된 생산 공정을 구축하는 개편 작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 향후 저궤도 제품 매출이 본격화하는 등 올해 매출이 전년도에 이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가 올해 기존 주력 사업인 선박 시장에서 해상용 VSAT제품으로 견조하게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부터 저궤도 안테나 양산 판매가 시작됨에 따라 해상용 VSAT 제품들이 외에도 저궤도 안테나 매출이 본격화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에이아이플레이 품은 쿤텍, AI·데이터 관리 영토 확장

전산업군 수요 대응 기술 고도화 AI·ML 분석·보안 분야도 시너지

정보보안기업 쿤텍은 인공지능(AI)·데이터사업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AI 전문 스타트업 에이아이플레이를 인수합병, 사업 영역을 다각화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사는 이번 인수를 통해 금융, 공공기관, 이커머스,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AI·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양사 기술력 시너지를 극대화해

AI 솔루션 고도화에 더욱 주력한다. AI·ML 전문 분석 플랫폼 ‘데이터이쿠(Dataiku)’ 솔루션 시장 점유율도 확대한다.

방혁준 쿤텍 대표는 “다양한 산업 분야 전반에서 AI와 데이터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주요 안건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쿤텍은 AI 분야 전문 스타트업을 인수 합병해 AI·데이터 솔루션 비즈니스를 고도화하고 공급망 보안 플랫폼 서비스를 강화해 다양한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쿤텍은 데이터이쿠 포커스 파트너

(Focused Partner)사다. 솔루션 공급과 환경 구성, 사용자 교육 등 전반적인 기술 지원을 맡고 있다.

회사는 융합보안 전문 기업으로 임직원 70%가 융합보안 전문가다. 바이너리 검증, 통한 취약점 관리 도구, 오픈소스 점검 도구 등을 공급하고 전문적인 보안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를 지원해 왔다.

고객사가 사이버보안 위협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돕고 있다. 관련 보안 관리 도구 공

급과 컨설팅 수행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에이아이플레이는 지난 2019년 설립된 개발자 중심 AI 전문 스타트업이다.

AI 주요 분야인 자연어, 영상과 이미지, 데이터 분야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금융권 챗봇 개발, 공공기관용 AI 개방형 기술혁신 플랫폼 개발, 이커머스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모바일 의료 서비스 개발 등 AI 및 데이터사이언스 관련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임중권기자 lim9181@etnews.com

드림라인-노키아 ‘이음5G 시장 공략’ 동맹

드림라인은 노키아와 지난 10일 이음5G(특화망)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사는 MOU를 통해 △5G 특화망(이음 5G) 사업 추진 협력 △장제 시장 발굴·마케팅 부문 등 협력 △양사 시너지 창출 △노키아 5G 특화망 솔루션인 구축형 MPW(Modular Private Wireless) 솔루션과 구축형 NDAC(Nokia Digital Automation Cloud) 솔루션 시장 확산에 협력할 계획이다.

노키아는 운송, 에너지, 대기업, 제조, 웹스케일, 공공부문의 2200개 이상 기업에 미션 크리티컬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했다. 다양한 분야에 걸친 세계 515개 이상 고객에게 특화망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련 시장을 선도했다.

임중권기자 lim9181@etnews.com



유지창 드림라인 대표(왼쪽)와 안태호 노키아 대표.

회사 관계자는 “5G 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인 노키아와 드림라인이 보유한 5G 광케이블 전국망에 각자 전문 영역을 결합해 5G특화망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말했다.

임중권기자 lim9181@etnews.com

에스큐브아이 ‘셸캡’ 2년 연속 조달시장 점유율 1

〈웹셀 탐지 솔루션〉

랜섬웨어 감염 예방 뛰어나 공공 넘어 금융권 공급 선두

정보보안 기업 에스큐브아이(대표 오영철)는 웹셀 탐지 솔루션 ‘셸캡(ShellCop)’이 2년 연속 조달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2021년도에 이어 2022년 조달청 나라장터 웹셀 탐지 솔루션 부문 1위를 달성했다.

에스큐브아이는 한국사회보장정

보원, 사단법인 보험개발원(행안부 사업),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등을 포함한 여러 공공기관에 추가로 셸캡을 공급, 웹셀 탐지 분야에서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셸캡’은 CC인증과 GS인증 1등급도 획득한 제품이다. 공공시장 점유율 1위 인지도를 기반으로 금융권 웹셀 탐지 시장에서도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

최근 카카오페이, 유안타증권, K뱅크, KB금융지주 등 다수 금융기관

에 셸캡을 공급했다. 높은 보안 수준을 요구하는 제1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기관에도 ‘셸캡’을 공급해 웹셀로 인한 랜섬웨어 감염 예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셸캡’은 웹통합 보안 관점에서 경쟁제품이 탐지 등 특정 보안 기능만을 지원하는 데 반해 △홈페이지 위변조 방지와 복원 △멀티백신·비실행형 파일검사 △서버 자원 사용에 대한 실시간 부하조절 기능으로 과부하 최소화 △외부 탐지 모듈 관리

등 웹 통합보안 기능 △AWS·애저·VM웨어·쿠버네티스 등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한다.

오영철 대표는 “조달 시장 점유율 1위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 웹셀 탐지 솔루션을 다양화하고 고도화해 제품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면서 “클라우드형 제품을 국내 클라우드 마켓 플레이스 4곳에 상반기 등록한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세이퍼존, 보안 위험 DB 100억개 자동 차단

사내정보유출방지 제품 강화

내부정보유출방지(DLP) 전문기업 세이퍼존(대표 권창훈)은 자사 내부정보유출방지(DLP)·랜섬웨어 보안 제품의 차단 기능을 강화해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세이퍼존 제품은 기능 강화를 통해 랜섬웨어 배포 사이트, 무역대금을 가로채는 피싱, 가상화폐 채굴, 스팸메일 배포 사이트 등 80개 분류 그룹 100억 DB를 자동 차단한다. 이를 통해 위험

웹(URL·IP)사이트를 통한 사내 정보 유출 등을 막는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현재 제품은 세이퍼존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는 물론 SK윌더스, LG유플러스 중소기업용 클라우드 보안팩 서비스로 쓰인다. 기업 내 임직원이 근무 시간에 웹서핑 등을 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해 업무 집중도를 높이는 효과도 제공한다. 웹메일과 메신저, 클라우드, P2P 등 인터넷 정보유출 사이트도 제어해 사이버 보안을 지원한다.

임중권기자 lim9181@etnews.com

WeGuardia™

ITU

보안요구사항 v3.0 최초 CC인증 제품

오픈 API 최신의 커널

온 프레미스. ZTNA기술, 클라우드 환경 운용

WeGuardia™

ITM

대용량 데이터 처리 기반 구성

TI 정보 및 이벤트 기반 위협 분석/관리

트래픽 및 시스템 리소스 모니터링 제공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61, 1902호

070-8853-8312

gov@future.co.kr